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개최 결정

33개 종목 국제연맹 만장일치 승인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4일 개막

도쿄올림픽의 패대를 이루는 33개 정식 종목 국제연맹(IF)이 내년 7월 23일 열기로 한 새 대회 일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계올림픽국제연맹연합(ASOIF)의 프란체스코 리키 비티 회장은 지난 31일(한국시간)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3개 종목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내년 새 올림픽 일정을 승인했다"며 "모두가

이 일정이 최고의 해답이라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 도쿄도(都) 정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에 열기로 한 2020 도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하기로 30일 발표했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린다. 원래 일정과 비교해 새 일정은 완전히 1년 뒤로 연기됐다. 대신 올림픽 개막일과 폐막일은 각각 하루씩 앞당겨졌다.

IOC는 먼저 도쿄조직위와 일정에 합의한 뒤 IOC 긴급 집행위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ASOIF의 승인을 거쳐 도쿄올림픽 새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테니스연맹 회장을 지낸 리키 비티 ASOIF 회장은 IOC와 도쿄조직위가 24일 대회 연기를 선언한 직후 여러 IF와 새 대회 일정을 조율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는 "국제트라이아슬론(철인3종)연맹과 승마연맹은 도쿄의 한여름 무더위를 우려해 올림픽을 좀 더 이른 시기에 치르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올림픽을 봄에 열면 많은 프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었기

에 이 제안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소개했다.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들의 출전으로 늘 높은 관심을 받는 농구를 비롯해 6~7개 종목이 올림픽을 일찍 개최하면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이클 일주대회인 투르드프랑스(2021년 7월 2~25일),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윌빙던(2021년 6월 28~7월 11일) 등 굵직한 이벤트와 올림픽이 겹쳐선 안 되는 사정도 고려해야 했다. 리키 비티 회장은 국제수영연맹과 세계육상연맹이 각각 내년 예정된 세계선수권대회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3개 종목 간의 일

정 조율 문제가 대부분 풀렸다고 덧붙였다. 세계육상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를 2022년으로 미룬다고 밝혔고, 국제수영연맹은 2021년 중 적당한 시점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일정을 옮길 것이다. 도쿄올림픽 새 일정이 사실상 올해와 똑같은 시기로 귀결된 또 하나의 배경에는 방송 중계권이 있다. IOC는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의 수익금 57억 달러(약 6조9800억원) 중 73%(5조1000억원)를 방송 중계권 수입으로 충당한다. 특히 TV 중계권 수입의 절반이 미국 방송사 NBC가 내는 돈이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육일기 빠져 '논란'

IOC는 소극적 입장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결국 육일기가 빠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스포니치아네스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을 정해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 x 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하지만 육일기는 제외됐다.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게 도쿄 조직위가 육일기를 반입 금지 대상에서 뺐

이유다. 다만, 조직위는 육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육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육일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도쿄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도쿄 대회에서의 육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도쿄신문이 지난해 9월 "육일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재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는 등 일본 내에

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도 도쿄 조직위는 육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육일기가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육일기 디자인은 일본 전통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외부성 홈페이지나 주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펴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육일기 사용 금지를 언급하지 않는 등 IOC도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연합뉴스



브라질 축구장에 야외병동 브라질 상파울루의 파카엠부 축구경기장에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야외병동이 건설되고 있다. 이 야외병동은 4월초 완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MVP에 박혜진... 통산 5번째 수상



박혜진

감독상 위성우·신인상 허예은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가드 박혜진(30·178cm)이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지난 31일 발표한 MVP 기자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박혜진은 총 투표수 108표 가운데 99표를 획득해 MVP 영예를 안았다. 2013-2014시즌에 처음 정규리그 MVP에 오른 박혜진은 이후 2014-2015, 2016-2017, 2017-2018시즌에 이어 올해 통산 5번째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여자프로농구 사상 정규리그 MVP 최다 수상 기록은 정선민 전 인천 신한은행 코치의 7회다. 그다음이 박혜진의 5번이다. 정은순 KBS N 스포츠 해설위원과 변연하 부산 BNK 코치가 나란히 세 차례씩 MVP에 뽑혀 그 뒤를 잇는다. 박혜진은 최근 7시즌 사이에 무려 5번이나 정규리그 MVP를 휩쓸어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5-2016시즌에는 양지희 BNK 코치, 2018-2019시즌에는 박지수(KB)가 MVP가 됐다. MVP 상금 1천만원을 받은 박혜진은 이번 시즌 27경기에서 평균 14.7점을 넣고 5.4어시스트, 5.1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득점 7위, 어시스트 2위 외에도 3점 성공 개수 3위(54개), 3점수 성공률 6위(34%), 자유투 성공률 1위(89.2%), 출전 시간 2위(36분59초), 국내 선수 공헌도 1위 등을 기록하며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1위 등극에 앞장섰다. 감독상은 2017-2018시즌에 이후 2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탈환한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이 받았



허예은

고, 신인상은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청주 KB에 지명된 허예은(19·165cm)에게 돌아갔다. 위성우 감독은 통산 7번째 감독상을 받아 이 부문 최다를 기록했고, 허예은은 이번 시즌 9경기에 나와 3.3점에 1.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팀당 정규리그 2~3경기를 남긴 상황이던 지난 20일 시즌을 중도에 종료한 여자프로농구는 플레이오프와 시상식도 모두 취소하고 개인상 수상자만 이날 발표했다. WKBL은 챔피언결정전 상금은 4월 1일 오후 2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진서 두번 연속 꺾은 신민준 "인공지능으로 공부한 덕분"

맥심커피배 결승 진출

신민준 9단이 국내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을 두 번 연속 물리치고 맥심커피배 결승에 진출했다. 신민준은 지난 30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기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4강에서 신진서에게 229수 만에 불계승했다. 흑을 잡은 신민준은 초반 접전에서 포인트를 탄 뒤 막판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세를 지켜 완승했다. 신민준은 지난 8일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당시 28연승을 질주 중이던 신진서를 제압해 팀 우승을 견인했다. 이어 22일 만의 재대결에서도 신진서를 물리친 신민준은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6승 18패로 조금 따라붙었다. 신민준은 올해 들어 22승 2패를 기록 중인 신진서를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기사이기도 하다. 신민준은 "그동안 신진서 9단과 대국에서 초반이 좋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으로 공부한 덕분에 최근 승리한 두 대국 모두 초반이 좋았다"고 말했다. 신진서를 꺾고 맥심커피배 결승에 오른 신민준은 내달 이지현 9단과 우승컵을 놓고 3번기를 벌인다. 이지현은 지난 23일 열린 다른 4강전에서 나현 9단을 이겼다. /연합뉴스



신민준 9단

국내 랭킹 3위인 신민준은 10위인 이지현과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를 기록 중이다. 신민준은 "결승 상대인 이지현 9단과 공식 대국은 많지 않지만, 국가대표 리그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한다"라며 "맥심커피배에서 많은 운이 따르고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결승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결승 3경기 1국은 오는 13일 오후 7시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2국은 20일, 3국은 2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버저블맨
3관	1917, 월드 워 Z
4관	n번째 이별중 스케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주디, 스케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7관	씨네카를 다크 워터스, 1917, 미드나잇 인 파리
8관	씨네카를 정직한 후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